

## [인천 공공도서관 역사와 미래 100년] 하. 전문가 제언

입력 2018-01-22 오후 8:25

“이용자 변화 읽은 정책·서비스 펼쳐야”

100년 역사를 지켜온 인천의 공공도서관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그 명맥을 이어가려면 새로운 변화에 맞춘 다양한 변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인천 공공도서관 100주년을 기념해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은 장애인·임산부·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를 비롯해 지역·환경적 요인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일정기간 무료로 빌려주는 책 나들이(순회문고)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공공도서관 정책과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날로 발전하는 매체에 따라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도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우선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단순하게 텍스트 자료만 제공했던 성격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공간으로 도서관을 재구성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존의 도서관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며 “텍스트 자료가 아니라, 오감을 모두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결집 장소가 바로 미래의 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도서관은 텍스트 자료를 읽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으로 한정됐지만, 멀티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도서관을 재구성하는 등의 논의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 요소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동안 도서관은 자료가 있는 곳으로 인식됐고 색인 등 자료 분류에만 많은 신경을 썼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의 전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하면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던 이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도서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인터넷이 글로벌 서비스라면, 도서관은 로컬 서비스가 될 수 있기에 지역성을 강화하면서 이를 기대하는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김민 기자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